

해외출장복명서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영옥
출장기간	2016. 10. 20(토) ~ 2016. 10. 25(목)		출장지	독일, 베를린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프로젝트는 돌봄제공자의 기여에 적절한 가치부여 및 거시경제모형 내로 돌봄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결과에서의 성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음. ▶ 인구구조와 경제 변동의 시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의 과소공급, 돌봄인프라의 과소투자, 여성의 삶과 취업결정에서의 돌봄부담이 미치는 제약 등에 대한 혁신적 정책해법이 절실히 요구됨. 돌봄노동을 이해하고 노동공급 및 경제적 복지적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성인지적 거시경제정책도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돌봄의 이해와 측정”, “성인지적 응용모델링” 등 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바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 본 회의가 개최됨. 					
경비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미국 아메리칸대학, 홀렛재단, 독일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등					
주요 회의내용	▶ 하위주제별로 총 1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8. 10. 30.

출장 복명자: 김영옥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김영옥

1. 출장일정

일자	세부내용	지역
10/20(토)	출국	한국 → 독일 베를린
10/21(일)	- 세션1: 경과보고 및 프로젝트 개요 소개 - 세션2: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1 - 세션3: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2 - 세션4: 돌봄 측정하기-한국의 유급, 무급 돌봄 경제	베를린 호텔 컨퍼런스룸
10/22(월)	- 세션5: 돌봄 이해하기-한국의 실태조사 결과 - 세션6: 실증적 거시경제모델링-한국의 사회계정 - 세션7: 실증적 거시경제모델링-동아시아 고령 사회의 CGE모델 - 세션8: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3 - 세션9: 그룹토의와 요약 - 세션10: 라운드테이블-거시경제정책이 어떻게 유무급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가?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10/23(화)	- 세션11: 저소득, 중간소득국가에서의 돌봄요구와 서비스 측정하기 - 세션12: 경제사회정책도구 내로 돌봄 통합의 중요성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10/24(수)~ 10/25(목)	출국 → 인천공항 도착	독일 베를린 → 한국

2. 회의 및 논의 내용

■ 세션1: 경과보고 및 프로젝트 개요 소개

■ 세션2: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1

"Social Reproduction, Gender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by Elissa Braunstei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USA) and Stephanie Seguino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Vermont, USA)

“Endogenous Growth, Population Dynamics, and Returns to Scale: Long-Run Macroeconomics When Demography Matters”

by James Heintz (Andrew Glyn Professor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USA) and Nancy Folbre (Director, Program on Gender and Care Work, PERI,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세션3: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2

“Financialization and the Care Economy”

by Srinivas Raghav (Lecturer,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and Ramaa Vasudeva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USA)

“Gendering macro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policy: The role of labour market and fiscal policies for gender equitable development”

by Ozlem Onaran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Greenwich, UK), Cem Oyvatt (Lecturer in Economics, University of Greenwich, UK) and Eurydice Fotopoulou (Lecturer in Economics,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UK)

■ 세션4: 돌봄 측정하기-한국의 유급, 무급 돌봄경제

“Counting on Unpaid Care Work: Human Infrastructure in Korea”

by Jooyeoun Suh (Postdoctoral Fellow,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USA) and Kijong Kim (Research Scholar,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USA)

“Counting on Paid Care Work: Human Infrastructure in Korea”

by Jooyeoun Suh (Postdoctoral Fellow,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USA) and Kijong Kim (Research Scholar,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USA)

■ 세션5: 돌봄 이해하기-한국의 실태조사 결과

“Methodology and Survey Instruments in Field Work for Paid and Unpaid Care Work in Korea”

by Ki-Soo Eun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and Jiweon Jun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Integrated Analysis of Care for Both Caregivers and Care Recipients”

by Hyuna Moon (Research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eung-Eun Cha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uwon, South Korea), I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and Eunhye Kang (Doctoral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세션6: 실증적 거시경제모델링-한국의 사회계정

“Gendered Economic Structure and the Care Economy of South Korea in a Social Accounting Matrix”

by Kijong Kim (Research Scholar,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USA)

■ 세션7: 실증적 거시경제모델링-동아시아 고령사회의 CGE모델

“GEM-Care: A Gendered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Analysis of Care”

by Hans Lofgren

■ 세션8: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3

“Access to infrastructure, women’s time allocation and growth”

by Pierre-Richard Agénor (Hallsworth Professor of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and

Development Economics, University of Manchester, UK) and Madina Agénor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Harvard University, USA)

■ **세션9: 그룹토의와 요약**

■ **세션10: 라운드테이블-거시경제정책이 어떻게 유무급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가?**

Moderator: Diane Elson (*Emeritus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Essex, UK*)

Speakers:

Elissa Braunstei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USA*)

James Heintz (*Andrew Glyn Professor of Economics,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USA*)

Jta Meier-Gräwe (*Professor, Department of Household Science,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세션11: 저소득, 중간소득국가에서의 돌봄요구와 서비스 측정하기**

“Assessing the Care Needs and Service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for Policy Analysis: Estimates of the demand of care for 64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by Elizabeth King (Nonresident Senior Fellow,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USA) and Hannah Randolph (Doctoral Student, American University, USA)

■ **세션12: 경제사회정책도구 내로 돌봄 통합의 중요성**

The Case of Colombia and the Africa Region

Ana-Maria Tribin (*Researcher, Bank of the Republic, Colombia*)

Isabella Aboderin (*Head of the Aging and Development Unit, African Population and Health Research Center, Kenya*)

Replicating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in Other Countries: Some Reflections

Mieke Meurs (*Professor, American University, USA*)

3. 시사점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 “돌봄노동과 경제”(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CWE-GAM project) 프로젝트의 목적은 돌봄경제와 성별화된 행동들을 거시경제정책 분석틀 안으로 확실하게 통합하는 새 연구물들을 산출하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여성이 지고 있는 끈질기고 힘든 무급노동의 부담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돌봄에서의 성별 격차(the gender care gap)를 보이려고 한다.
- 경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시경제적 분석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는 공공지출, 조세, 무역, 이민 및 화폐정책 등의 정책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 이 프로젝트는 돌봄노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혁신적인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돌봄의 이해와 측정”, “성인지적 응용모델링” 등 세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림> CWE-GAM project의 연구분야

거시경제학 다시 생각하기	돌봄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성인지적 응용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차원을 거시경제학에 들여오기 - 아동, 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유급, 무급의 돌봄을 기존의 거시경제 모형 안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지수 개발, 혁신적인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복지, 돌봄노동의 특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 - 돌봄 제공, 경제성장, 배분간의 교차성을 예시하는 새 연구물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젠더화된 행위 등을 통합하는 거시경제도구를 국가별로 개발 - 관련정책이 경제적, 복지 및 분배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답론 심화

■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경제 변동의 시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의 과소공급과 낮은 질, 돌봄인프라의 과소투자, 여성의 삶과 취업결정에서의 돌봄부담이 미치는 제약 등에 대한 혁신적 정책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이해하고 노동공급 및 경제적/복지적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성인지적 거시경제정책도구의 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이 시간사용조사를 수행해 왔고, 인구와 사회변동이 격심한 국가로서 본 프로젝트의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되어 돌봄노동자와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질적 조사, SAM 개발, CGE 모형 구축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연구물을 활용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이 프로젝트는 이론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advocacy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연구결과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응용되기를(duplicate) 희망한다. 즉 정책결정자, 학자,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선택에 따라 남녀별로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분석틀이 정책 설계, 시행, 평가에 응용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분배,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가용한 정책옵션풀을 넓히도록 후속 응용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advocacy를 위한 여성단체와의 협력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돌봄의 3R

- 지난 5년간 변혁적인 돌봄정책을 입안하는데, 프레이저(1997)가 제안하고 엘슨(2008)이 재해석한 the Triple R framework(무급노동과 가사노동의 recognizing:인식, reducing:감소, redistributing:재분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Fraser, Nancy (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 Elson, Diane (2008): “The Three R’s of Unpaid Work: Recognition, Reduction and Redistribution”. Paper presented at the Expert Group Meeting on Unpaid Care 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New York: UNDP.
- 이 개념과 함께 우리 사회의 ①돌봄정책을 정의하고 ②변혁적인 돌봄정책(transformative care policies)을 제안하며 ③care agenda를 개발하고 ④돌봄정책의 틀을 잡는(framing), 그리고 ⑤돌봄이슈를 여성운동 의제로 동력화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독일의 “the 2018 Second Gender Equality Report” 분석 및 활용

- 세션10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이 어떻게 유·무급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고, 독일정부가 최근 출간한 *the 2018 Second Gender Equality Repor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책의 저자 중 하나인 Uta Meier-Gräwe (Professor, Department of Household Science,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가 참석하였다.
- 이 책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에 어떻게 통합할지를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성 평등 촉진을 도달 목표로 하는 유사한 정책보고서를 집필하게 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시도는 부수적으로(그러나 매우 중요한) ①거시경제정책들이 유급 및 무급 돌봄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②돌봄에 대한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시경제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며 ③돌봄에 대한 성 인지적 거시경제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도 가져올 것이다.